

부산항, 단순 기항지 넘어 ‘체류형 크루즈 거점’으로 도약

프랑스 포낭과 견고한 파트너십 확인
2030년까지 모항 3배 확대 계획
모나코 실버씨와 럭셔리 상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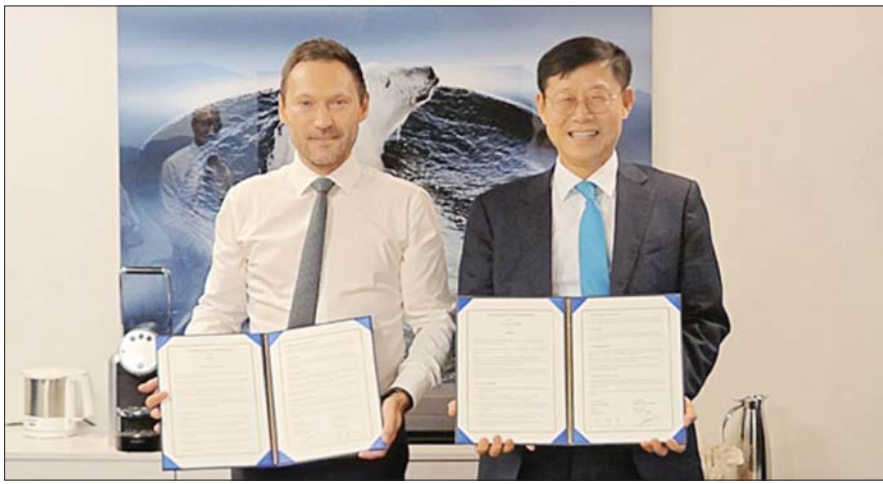
부산항만공사가 미주에 이어 유럽 본거지의 크루즈선사들과도 협력을 강화한다. 단순 기항지 입항이 아닌, 부산 모항 운항을 비롯해 ‘부산 체류형’ 럭셔리크루즈 운항 횟수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달 27~28일(현지시간) 기간 서부 지중해와 맞닿은 프랑스 마르세유와 모나코를 차례로 방문했다고 밝혔다. 럭셔리 크루즈선사 포낭(PONANT)과 실버씨(Silversea) 본사가 각각 위치해 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현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부산항 모항·오버나잇 등 체류형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낭은 올해 공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항공·철도를 연계한 모항 크루즈를 선보인 핵심 파트너다. 공사는 첫 운항의 성과를 중장기적인 부산 모항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로 이어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포낭은 올해 처음 4항자로 시작한 부산



송상근(오른쪽)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크루즈선사 포낭(PONANT)의 장 바티스트 보리에 총괄과 ‘부산 항공·철도 연계 모항크루즈 활성화 및 승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갖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모항 운항을 내년 6항차, 후년 9항차로 확대하기로 확정했다. 2030년까지 시범운항 첫해인 올해보다 3배 이상 항차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2027년과 2028년도 부산 모항 상품은 현재 포낭 누리집에서 판매 중으로, 부산 모항이 일회성 운항을 넘어 중장기 크루즈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올해 포낭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 국내 최초 항공·철도 연계 크루즈의 경우, 서울과 부산을 하나의 크루즈 여행 일정

으로 연결했다는 호평을 받는다. 해외 관광객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서울을 관광하고 고속철도(KTX)를 이용해 부산으로 이동한 뒤 부산항에서 승선하는 방식이다.

마르세유의 포낭 본사에서는 장 바티스트 보리에 선대운영·신규프로젝트 총괄 등 경영진과 만나 부산 모항의 중장기 운항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면담에서 운항 횟수 확대뿐 아니라 승객의 승·하선부터 터미널 이용과

를 높이기 위한 세부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또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향후 승·하선 절차와 터미널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부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모항으로서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모나코의 실버씨는 부산항에 지속적으로 입항해 온 로얄캐리비안 그룹의 대표 럭셔리 브랜드다. 앞서 공사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먼저 로얄캐리비안 그룹의 선대배치 담당 임원진과 아시아 선대전략에서 부산항의 역할을 논의한 바 있다. 실버씨 본사에서는 여정 기획·기항지 개발·항만 운영 등과 관련해, 주요 실무 책임자들과 오버나잇·준모항 확대 및 단계적 모항 발전방안을 협의했다.

실버씨와는 부산항 체류형 크루즈 확대와 크루즈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버씨의 부산항 입항은 올해 11항차에서 2027년 26항차로 두 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는 없었던 부산 오버나잇 일정도 내년 3항차를 새롭게 도입한다.

양측은 면담에서 럭셔리 크루즈 승객의 특성에 맞춰 승·하선부터 터미널 이용과

관광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의 편의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오버나잇 확대와 향후 모항 운항을 위해 필요한 단계별 개선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실버씨 측은,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춘 부산이 하루 일정에 그치지보다는 충분한 체류시간 확보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크루즈 관광상품을 보다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공사는 부산항의 24시간 운영 여건을 바탕으로 실버씨의 오버나잇 운항을 확대하고 체류시간의 충분한 확보가 가능한 일정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포낭의 부산 모항이 2030년까지 이어지고 운항 규모도 확대되는 것은, 부산항이 일회성 기항지를 넘어 크루즈 여행의 출발과 도착지로 성장할 가능성을 실제 시장에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선사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실버씨의 오버나잇과 같은 체류형 크루즈를 지속확대해 모항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K-소비재, 中 유통사와 PB로 시장 공략

코트라, ‘중국 소매유통 파트너링’ 개최
상당 450건·계약추진 1000만달러

중국 소매유통 시장의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K-소비재가 기존 완제품 납품 방식을 넘어 현지 유통사와의 ‘PB(Private Brand·자체 브랜드) 공동개발’을 통해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일 중국 상하이 구베이 힐튼 호텔에서 중국 소매 유통시장 진출의 새로운 협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2026 중국 소매유통 파트너링 플라자(2026 China Retail Partnering Plaza)’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자체 등이 공동 주최하고 상하이시PB협회 등과 협업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뷰티·식품 분야 국내 유망 K-소비재 기업 80개

사와 알디(ALDI), 메트로(METRO) 등 중국 진출 글로벌 유통망 및 바이어 100개사 등 총 250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현장에서는 한중 소비재 파트너십 포럼, PB 파트너링 상담회, 전시 쇼케이스, 수출 컨설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총 450건의 수출상담을 통해 1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중국 유통사들이 한국 기업과의 PB 협력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현지 소매 유통 시장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최근 중국 유통 시장은 유통 채널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거 단순한 ‘가성비’ 위주의 PB에서 ‘상품 고급화와 차별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유통 체인 샘스클럽(Sam’s

Club)의 경우 매장 내 PB 브랜드인 ‘멤버즈 마크(Member’s Mark)’ 비중이 전체 판매 상품의 약 30%를 차지하며, 유통 전문 미디어 역량동력에 따르면 현지 유통 공룡 허마 역시 PB 판매 비중이 50%에 육박한다. 유통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PB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 뛰어난 기획력과 고품질 제조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과의 ‘공동 개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코트라는 단순 완제품 수출을 넘어 중국 진출 글로벌 유통망의 상품 기획부터 공급망 관리까지 함께하는 PB 공동개발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유통망 공동 PB 개발은 양국 기업의 협업을 기반으로 향후 제3국 시장으로 함께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반도체 수출 466억달러 ‘역대 최대’

산업통상부, 8월 수출입동향 발표
수출 982억·흑자 347억 달러 기록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이 지속되면서 8월 수출액이 3개월 연속 900억 달러 고지를 돌파했다. 반도체 수출은 고대 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고부가제품의 폭발적인 수요와 가격 상승에 힘입어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7% 증가한 982억 5000만 달러(약 134조 4551억 원), 수입은 22.5% 증가한 635억 1000만 달러(약 86조 9452억 원)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8월 무역수지는 347억 5000만 달러(약 47조 4337억 원) 흑자를 기록해 3개월 연속 300억 달러 이상을 나타냈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72.5% 증가한 44억 7000만 달러로 4개월 연속 40억 달러를 상회했다. 올해 1~8월 누적 무역흑자 규모는 2025억 달러(약 277조 101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622억 달러나 폭증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수출 실적이 지난해 기록을 조기 돌파하는 것은 물론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봤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현재 8월까지 6933억 달러이고, 그다음 달(9월) 기준으로 보면 작년 실적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해 보인다”며 “연간 실적으로 보더라도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2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4개 품목의 수출이 대폭 늘었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는 D램 고정가격 반등과 HBM 호조세가 지속되며 전년 대비 209.0% 폭증한 466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해 3개월 연속 400억 달러 고지를 밟았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기업용 SSD 등 컴퓨터 수출도 62억 4000

만 달러로 419.5% 경증 뛰었다. 무선통신 기기 역시 갤럭시 신제품 효과로 21.2% 증가한 18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제품(68.4억 달러, +65.3%)과 석유화학(38.6억 달러, +12.2%)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차전지(6억 달러, +24.0%)도 광물 가격 회복과 ESS 수요 증가로 4개월 연속 플러스를 썼다. K-콘텐츠 열풍에 입힘입어 바이오헬스(14.1억 달러, +22.3%), 화장품(13.1억 달러, +52.1%), 농수산물(9.8억 달러, +1.5%) 등도 역대 8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완성차 업계의 하계 휴가 시점 이동과 부분 파업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29.8% 감소한 38억 5000만 달러에 그쳤다. 선박 역시 인도 물량 감소로 45.9% 줄어든 16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조작으로 9월부터는 즉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곳에서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졌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320%)와 일반기계(+33%)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119.3% 급증한 241억 달러를 기록, 3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대미국 수출도 반도체(+300%)와 컴퓨터(+1040%)의 호조로 89.3% 증가한 165억 달러를 올렸다. 아세안 수출은 역대 8월 중 최대치인 190억 9000만 달러(+75.4%)를 기록했다.

김경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를 비롯해 주요 품목의 수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의 관세정책과 EU의 TRQ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 협력사 ‘자율 안전관리’ 강화… 우수 대표 19명 포상

주 1회 이상 직접 현장 방문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협력회사 경영진이 직접 현장 안전 관리의 전면에 나서는 자율 안전 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한전은 지난 8월 31일 충북 오송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에서 올해 2분기 동안 현장 안전 문화를 선도한 우수 협력회사 대표자 19명을 선정해 포상하고 격려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협력사 대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곧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수준과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경영진이 실질적인 안전 책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지난 4월부터 ‘협력회사 대표자 현장 안전점검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이에



한국전력은 지난 8월 31일 충북 오송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에서 2분기 중 현장 안전 문화를 선도한 우수 협력회사 대표자 19명을 선정해 격려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조상욱 안전기술원 이사장, 오광해 전기공사협회 상근부회장, 이형주 전기공사협회 회장, 정지호 한전 안전&영업배전부사장, 김동민 한전 안전혁신단장, 강호송 한전 산업안전운영실장. /한전

따라 한전의 모든 협력사 대표자는 주 1회 이상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직접 주관하고 위험요인을 즉시 조치하는 자율 안전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또 한전 각 사업소장과 협력사 대표가 월 1회 이상 심층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인 개선책을 함께 논

의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은 이날 선정된 우수 대표자 19명에게 각각 50만 원의 자율 안전 실천 포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기업에는 ‘자율 안전 선도 협력회사’ 현판을 수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